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26년 7월 공개된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 실적에서는 168개 기업이 선정됐지만 실제 매칭은 82명으로 목표 164명의 50% 수준이었다. 기업을 많이 발굴한 것과 청년이 실제 일자리로 연결되는 것은 같은 성과가 아니었다. 이에 ‘몇 개 기업을 찾았는가’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연결이 막히는가’를 먼저 진단하는 분석을 시작했다.
- 경기데이터드림의 시군별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에는 구인·구직·취업·알선 실적이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31개 시군을 표와 순위만으로 비교하면 인접지역의 차이, 북부·남부 권역 안의 편차, 같은 저성과라도 원인이 다른 지역을 직관적으로 읽기 어렵다. 특히 ‘구직 수요가 취업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지역’과 ‘지역 내 구인 수요 자체가 부족한 지역’은 필요한 정책수단이 다르다.
- 이에 2023~2024년 공개 원자료로 연결률·알선수율·수요비·연결률 추세를 계산하고,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SGIS 2025년 2분기 센서스용 시군구 경계와 결합했다. SGIS는 결과를 장식하는 배경지도가 아니라, 시군별 수치를 행정공간에 정확히 붙여 ‘어디에서 어떤 병목이 나타나는가’를 비교할 수 있게 한 분석 레이어로 활용했다.

기업 발굴량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연결이 막히는가'였습니다

168개

선정 기업

2026년 7월 공개실적

82명

실제 매칭

목표 164명 대비

50%

목표 대비 매칭

연결 병목 확인

출발점: '몇 개 기업을 찾았는가'에서 '어느 시군의 어떤 병목을 먼저 풀 것인가'로 질문 전환

□ 추진과정

○ 분석은 ① 공개자료 확보, ② 품질검사, ③ 시군별 지표 계산, ④ 31개 시군 내 백분위 표준화, ⑤ SGIS 경계와 공간결합, ⑥ 지도·사분면 해석의 순서로 진행했다. 2023~2025년 시군별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 93행을 확보한 뒤 연도×31개 시군의 행 수·결측·동일값·급변을 점검했다. 공개되지 않은 값은 0으로 대체하지 않았고 임의 공간도 적용하지 않았다.

- 품질검사 과정에서 2025년 공개 CSV의 구인등록수와 구직등록수가 31개 시군 모두 완전히 일치하는 패턴을 발견했다.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적 이상이므로 원천 ETL·컬럼 매핑 확인 전에는 2025년 수요 관련 값을 순위 산식에서 제외했다. 분석 시점은 2024년, 추세 비교는 2023년으로 고정해 최신정보다 검증 가능성을 우선했다.

■ 활용분야 및 주요내용:

- 국가데이터처 「SGIS 행정구역 통계 및 경계_20250630」의 원천 레이어 bnd_sigungu_00_2025_2Q(EPSC:5179)를 활용했다. 전국 경계에서 경기도 시군구 44개를 추출하고, 일반구가 있는 시는 상위 시 단위로 병합해 최종 31개 시군을 구성했다. 경계 위치는 임의 수정하지 않았고 공간결합 누락 0건을 검증했다.

SGIS가 표 형태의 고용지표를 '공간 진단'으로 바꾼 과정



원천 SGIS 레이어: bnd_sigungu_00_2025_2Q | 경계 기준일 2025.6.30. | 최종 분석결합 누락 0

핵심: SGIS는 결과를 장식하는 배경이 아니라, 시군별 수치를 행정공간에 결합해 인접·권역·지역 차이를 읽게 하는 분석 레이어

□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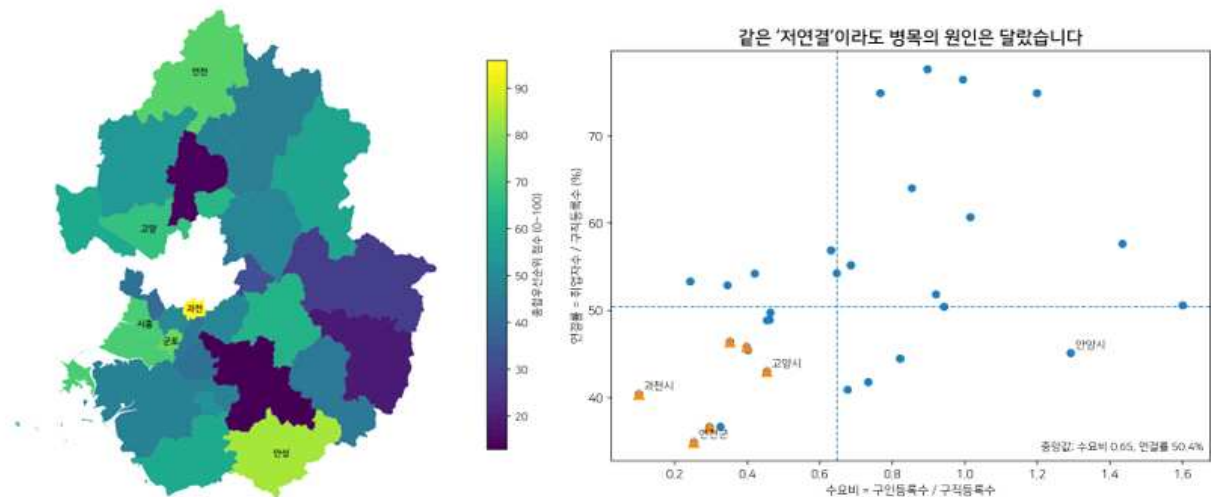
○ 연결률은 ‘취업자수÷구직등록수’, 알선수율은 ‘취업자수÷일자리알선수’, 수요비는 ‘구인등록수÷구직등록수’, 연결률 추세는

□ 추진내용

○ 연결률은 ‘취업자수÷구직등록수’, 알선수율은 ‘취업자수÷일자리알선수’, 수요비는 ‘구인등록수÷구직등록수’, 연결률 추세는 ‘2024 연결률-2023 연결률’로 정의했다. 각 값을 31개 시군 내 백분위로 바꾸고 취약 방향을 맞춘 뒤 동일가중 평균해 0~100 종합우선순위를 산출했다. 이 지표들은 개인별 취업확률이 아니라 시군 행정집계를 비교하기 위한 진단 프로크시로 해석했다.

- 2024년 종합우선순위 상위 5개 시군은 과천시 96.0점, 안성시 83.9점, 군포시 76.6점, 연천군 74.2점, 시흥시 71.8점이었다. 비선정 북부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고양시 67.7점을 균형 후보로 추가해 ‘상위 5개+북부 균형 1개’ 시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이는 지원대상을 확정된 명단이 아니라 동일한 산식과 데이터로 반복 계산하는 시범 진단이다.

SGIS 경계와 결합한 2024년 경기도 31개 시군 종합우선순위



- 지도와 사분면을 함께 보자 ‘저연결’이라는 한 단어로 묶였던 지역이 서로 다른 원인으로 나뉘었다. SGIS 경계는 점수의 높고 낮음 뿐 아니라 인접·권역 맥락을 함께 보여주어, 단순 순위표보다 ‘어디에서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가’를 빠르게 읽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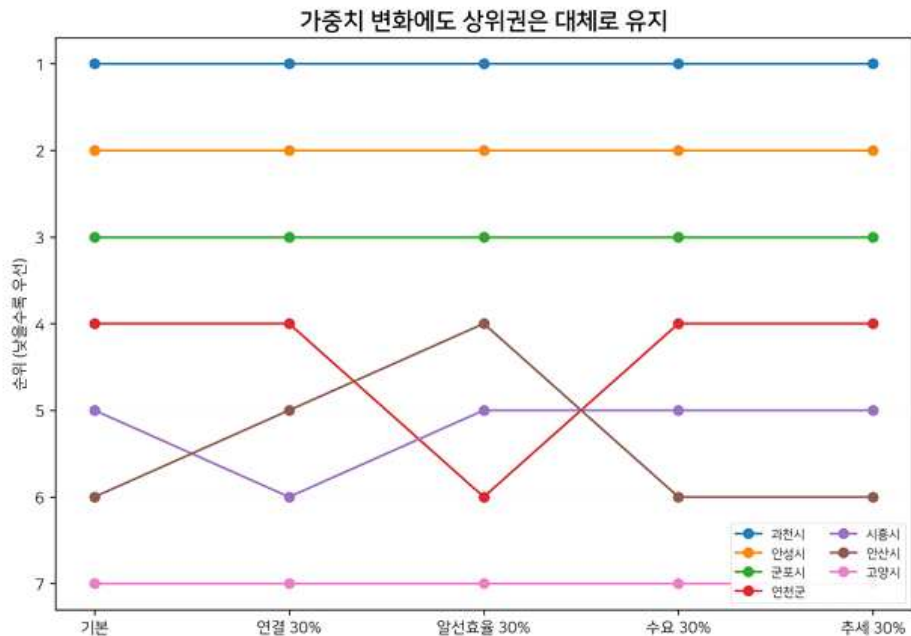
○ 공간화의 목적은 ‘취약지역 1등’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병목원인을 구분하는 것이었다. 2024년 북부 연결률 중앙값은 50.8%, 남부는 50.4%로 권역 평균 차이는 작았지만 시군별 편차는 컸다. 안양시는 수요비 1.29·연결률 45.1%로 ‘수요는 있으나 연결이 낮은’ 유형, 연천군은 수요비 0.25·연결률 34.9%로 ‘지역 내 채용수요 자체

가 부족한’ 유형이었다.

지역	연결률	수요비	알선수율	우선 검토 질문
안양시	45.1%	1.29	24.6%	수요가 있는데 왜 연결이 낮은가?
연천군	34.9%	0.25	25.7%	지역 내 수요를 어떻게 보완할까?

- 알선수율도 파주시 6.6%에서 의왕시 34.4%까지 차이가 났다. 따라서 권역 일괄지원보다 시군별 병목에 맞춘 기업발굴·이동지원·직무정보·매칭 개선을 우선 검토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었다. 이 결과를 ‘지역 진단→좋은 일터 검증→직무 미리보기→설명 가능한 매칭→수료·정규직 전환·6개월 유지’의 개선안으로 연결했다.

- 특정 지표 하나에 결과가 좌우되는지도 확인했다. 기본은 네 축 25%씩, 민감도 점검은 한 축만 30%로 높이고 나머지 세 축을 23.33%로 조정했다. 과천·안성·군포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1~3위를 유지했고 상위 후보군도 대체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 추진성과

- 성과 1 : 공간 진단자료 완성 구인·구직·취업·알선 실적을 네 개의 비교지표로 구조화하고 SGIS 시군구 경계와 결합해 31개 시군 정책지도를 제작했다. 표에서는 보이지 않던 인접지역·권역 내부 편차를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성과 2 : 정책 질문 구체화 ‘상위 5개+북부 균형 1개’ 시범 포트폴리오와 지역별 병목 유형을 도출하고, 기업 수 중심 성과관리에서 매칭→수료→정규직 전환→6개월 유지로 이어지는 개선안을 제안서 형태로 완성했다.
- 성과 3 : 재현성과 품질관리 2025년 구인·구직 31/31 완전 일치 문제를 탐지해 해당 값을 순위에서 제외했다. 원자료·가공 CSV·수식·민감도·출처대장과 SGIS 경계 활용샘플을 보존했고, 31개 시군 공간결합 누락은 0건이었다.

완성된 성과와 다음 검증



실제 성과는 '분석 지도-정책제안 완성'까지만이며, 정책 채택이나 고용성과 개선은 향후 검증 영역으로 분리

- 현재 확인된 성과는 분석·지도·정책제안과 제출용 결과물의 완성까지이며, 정책 채택이나 실제 고용성과 개선이 실증된 것은 아니다. 향후 2025년 원천 매핑 문제를 확인해 시계열을 갱신하고 실제 수료·전환·6개월 유지 결과가 축적되면 공간별 성과를 다시 평가할 수 있다. SGIS의 행정동·격자 경계와 청년인구·사업체·종사자 통계를 결합하면 생활권 수준으로도 분석을 확장할 수 있다.

이번 활용에서 SGIS의 가치는 서로 다른 숫자를 행정공간에 정확히 붙여 단순 순위를 ‘어디에서 왜 문제가 생기는가’라는 정책 질문으로 바꾼 데 있다. 표에서 보이지 않던 지역별 차이를 공간에서 확인하고 지역별 다음 검토를 설계한 것이 핵심 성과다.